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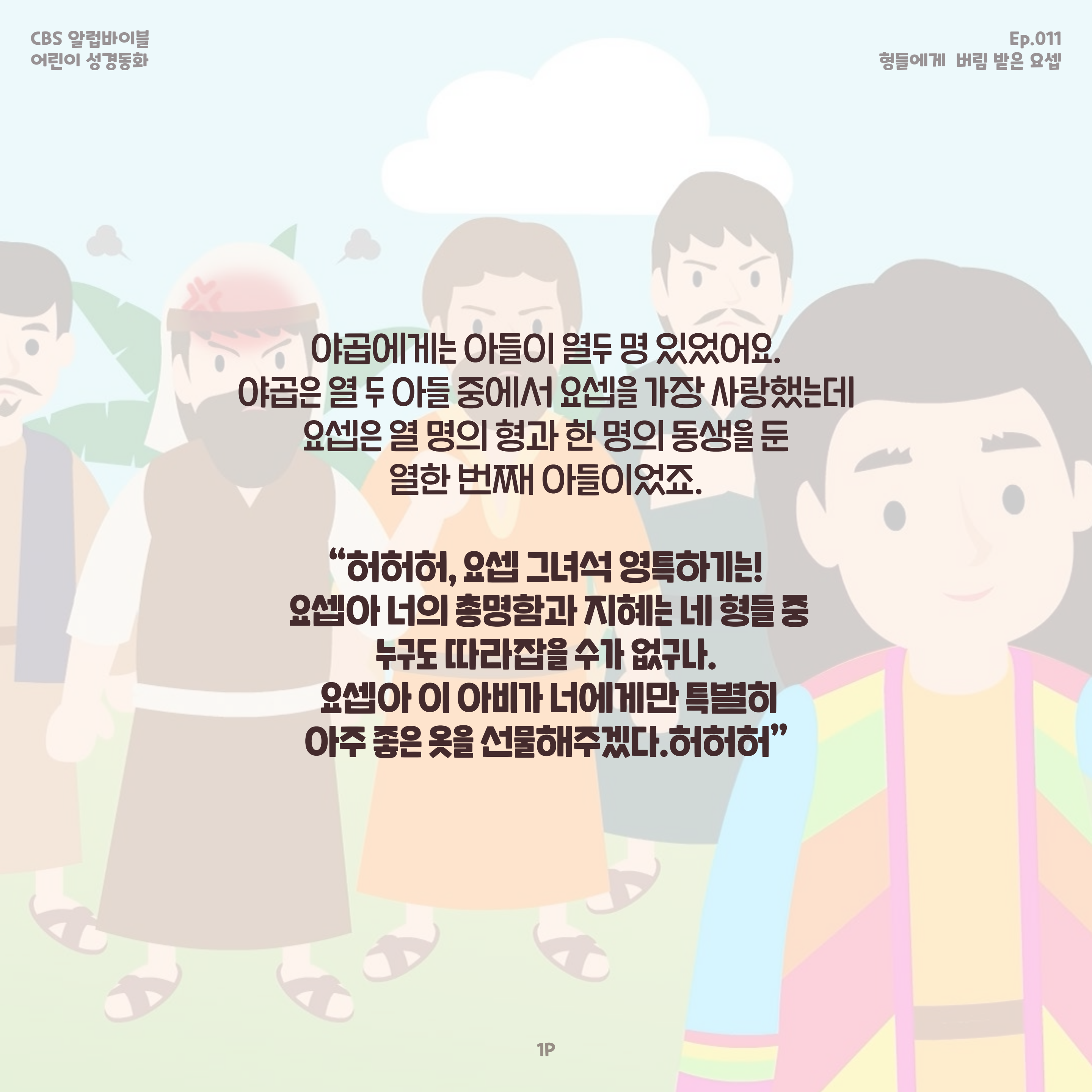
A colorful cartoon illustration of several biblical characters. In the center, a man with a beard and a red headband with a cross-like symbol looks angry. To his right, a man in an orange robe looks downcast. Further right, a man with a mustache in a dark green robe looks serious. On the far right, a woman with long dark hair in a yellow and pink striped robe looks forward with a slight smile. On the far left, a man in a brown robe and blue sash is partially visible. The background features green foliage and a white cloud against a light blue sky.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11

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

(창세기 37:1~35)



야곱에게는 아들이 열두 명 있었어요.
야곱은 열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
요셉은 열 명의 형과 한 명의 동생을 둔
열한 번째 아들이었죠.

“허허허, 요셉 그녀석 영특하기는!
요셉아 너의 총명함과 지혜는 네 형들 중
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.
요셉아 이 아버지가 너에게만 특별히
아주 좋은 옷을 선물해주겠다.허허허”

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
색동옷을 주었어요.
그 모습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
시기하고 질투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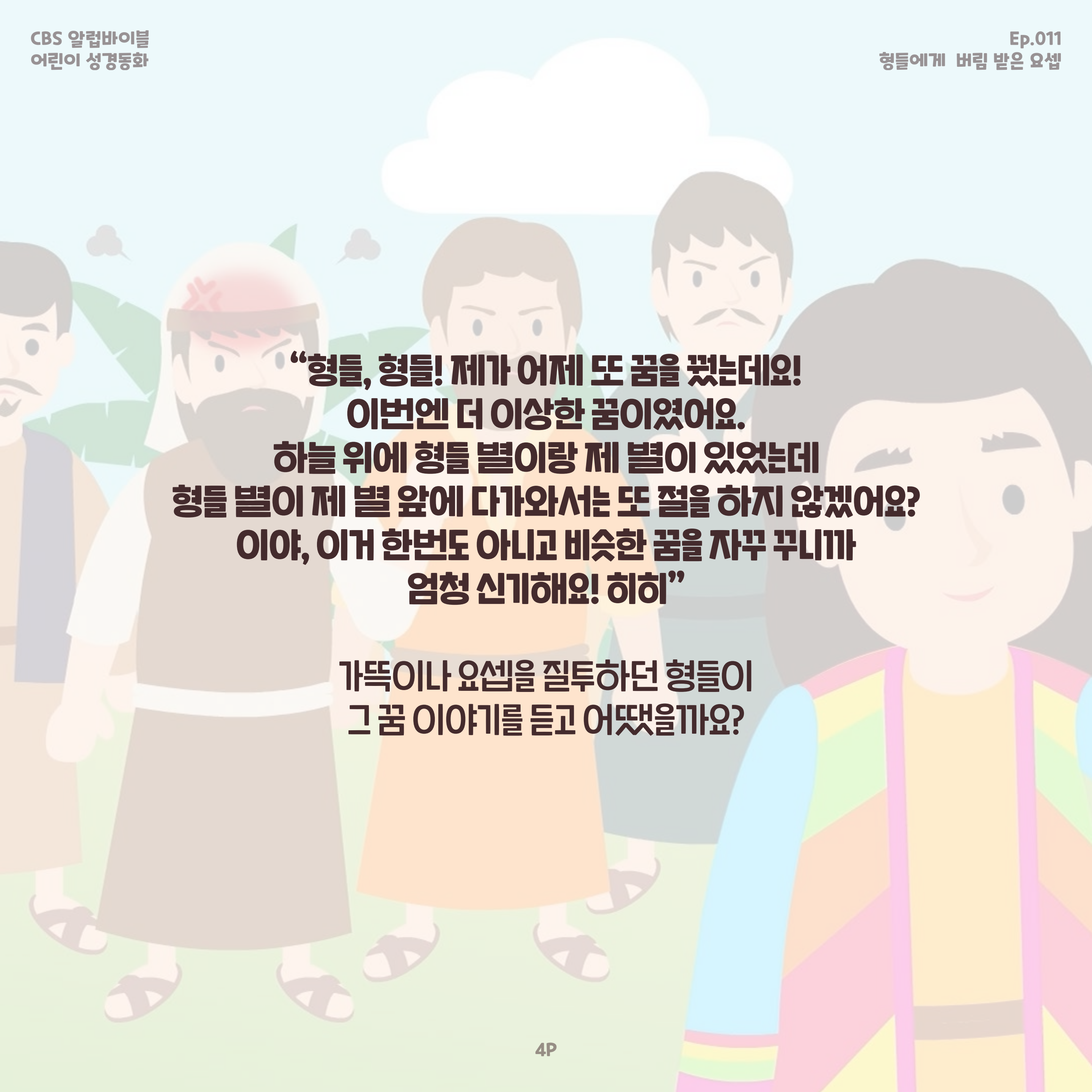
“요셉 녀석 새 옷을 입고 설치는 꼴이라니.
정말 두 눈 뜨고 못보겠구만!”

“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이런 칙칙한
옷만 입히고 요셉 녀석만 예뻐하는거야?
가만 보면 아버지도 정말 치사하시단말야!”

**“우리 저 눈엣가시 요셉 녀석과는 오늘부터
인사도 하지 맙시다.
한 번 따돌림을 받아보아야주제파악을 하지! 흥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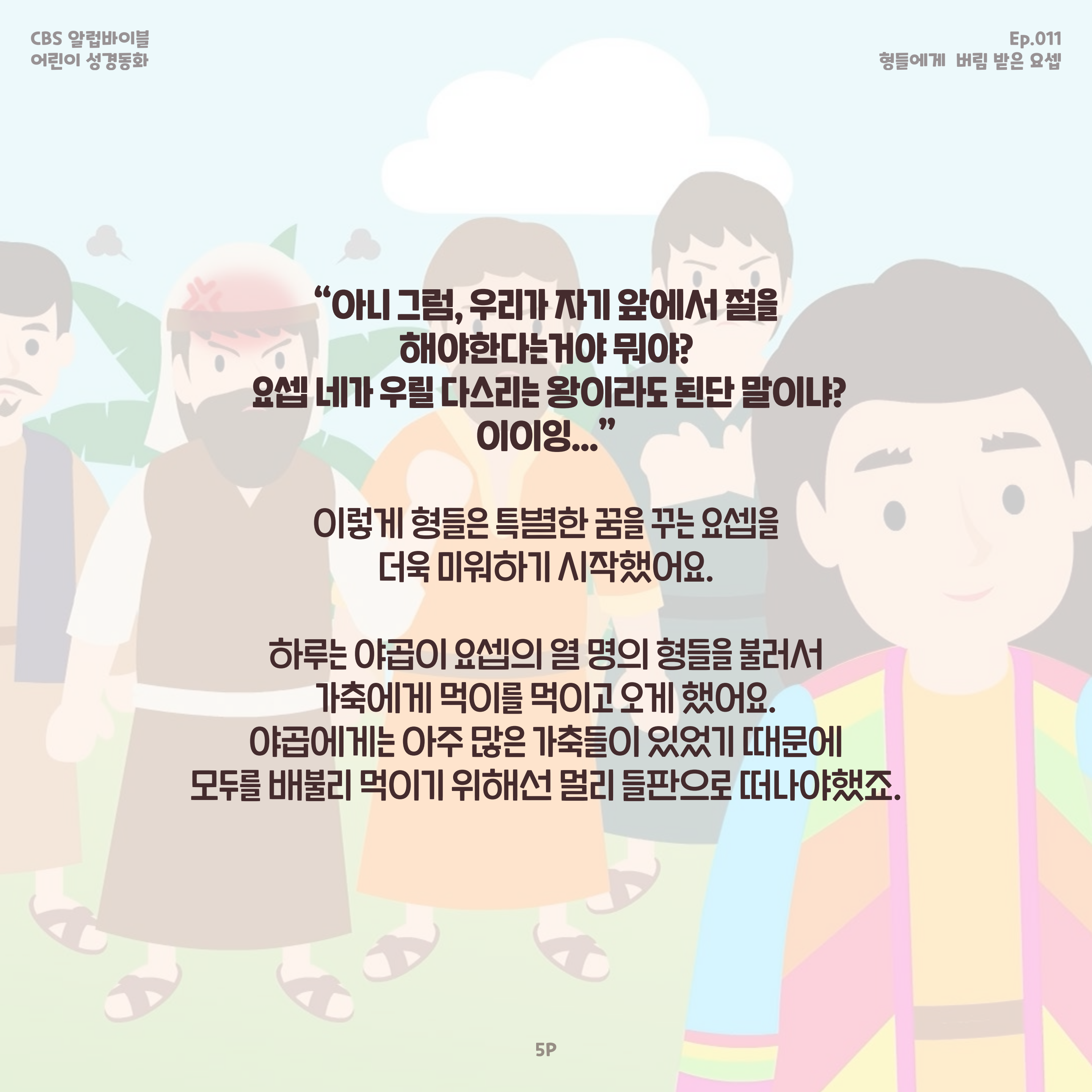
**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!
예를 들어 이런 꿈들이었죠.**

**“형들! 제가 간밤에 꾸 꿈 이야기를 들어볼래요?
형들이랑 제가 들에서 곡식을 묵고 있었는데
형들이 묵은 곡식들이 제가 묵은 곡식한테 찾아와서는
글쎄, 그 앞에서 절을 하지 뭐예요?
이거 뭔가 이상한 꿈이지 않아요?”**



**“형들, 형들! 제가 어제 또 꿈을 꿔는데요!
이번엔 더 이상한 꿈이었어요.
하늘 위에 형들 별이랑 제 별이 있었는데
형들 별이 제 별 앞에 다가와서는 또 절을 하지 않겠어요?
이야, 이거 한번도 아니고 비슷한 꿈을 자주 꾸니까
엄청 신기해요! 히히”**

**가뜩이나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이
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?**



**“아니 그럼, 우리가 자기 앞에서 절을
해야한다는거야 뭐야?
요셉 네가 우릴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단 말이나?
이이잉...”**

**이렇게 형들은 특별한 꿈을 꾸는 요셉을
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어요.**

**하루는 야곱이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을 불러서
가축에게 먹이를 먹이고 오게 했어요.
야곱에게는 아주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
모두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선 멀리 들판으로 떠나야했죠.**

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떠난지 며칠이 지나고.
야곱은 아들들이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.
그래서 요셉을 불렀죠.

**“요셉아 너는 지금 형들한테 가서 빈둥빈둥 안 놀고
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거라.”**

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.
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은 끝에
마침내 저 멀리서 형들의 모습이 보였죠.

**“형들! 르우벤 형! 유다 형! 저예요 저!
요셉이 왔어요! 여기에요 여기!!”**

**요셉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걸 본 형들은
기분이 좋지 않았죠.**

**“요셉 저 녀석이 왜일이지?
또 우리를 감시해서 아버지께
고자질이나 하려고 온 건가?”**

**“또, 또, 또! 저 꼴보기 싫은 색동옷을 입고
칠레레팔레레 달려오는구만
저 옷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어!”**

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
죽이고 싶어 했어요.
하지만 맏형 르우벤 만큼은
요셉을 해치고 싶지 않았죠.
그래서 르우벤은 한 가지
꾀를 내어 동생들에게 말했어요.

**“얘들아,잘 생각해봐라.
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 까지야 있겠어?
그냥 깊은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자.
이런데는 사람도 안 다니고 무시무시한
맹수들이 많으니까
굳이 우리 손으로 해치지 않아도
알아서 죽게 되지 않겠냐 말이야.”**

**르우벤은 나중에 동생들이 다른 곳으로
이동하면 자신이 몰래 구덩이로 돌아와서
요셉을 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.**

그런 계획을 모르는 다른 형들은
모두 르우เบน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
그렇게 요셉은
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!

“형들! 왜 이러는거예요!
나를 꺼내주세요!! 살려주세요!!”

하지만 르우เบน의 계획과는 달리
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.
르우เบน이 잠깐 가축을 돌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
이집트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거죠.

그 모습을 본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!

**“옳거니! 형들, 동생들아. 이렇게 하는건 어떻겠냐.
요셉을 가만히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는건
우리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잖아.
차라리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을 노예로
팔아버려서 우리가 돈을 챙기는데 어떻단 말이야!”**

**“아하! 유다 형!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?
요셉 녀석이 밍진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인데
죽이는건 좀 게름칙했어.
돈도 벌고 요셉도 안 죽어도 되고!
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데? 퐁퐁퐁.”**

**결국 요셉은 이집트 상인들에게
은 스무 개에 노예로 팔리고 말았어요.**

**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
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!**

**“아니 이 녀석들아!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!
나랑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
니들이 그럴 수 있어!
요셉이 팔려갔다는 걸 아버지께는
뭐라고 말씀드리냐고!!”**

**“아니 형님,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!
형님도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두는 걸
동의했잖습니까.**

**그것보다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데
그 녀석한테도 나온거 아닙니까?”**

**“맞아요.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.
저희가 요셉을 팔아버릴 때
요셉의 색동옷을 벗겨버렸거든요. 헤헤.
이 옷에다 동물의 피를 묻혀가서
아버지께는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고
말씀 드리면 속으실 수 밖에 없을거라구요!”**

**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르우벤은
새하얇게 질린얼굴로 동생들의 말을
듣고 있을 수 밖에 없었어요.**

**한편 집에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.
아들이 도착하자 한달음에 마중을 나갔어요.**

**“한 명.. 두명 세명... 아니 왜
열 명 밖에 없는거야?
요,요셉이 보이지 않는구나.
너희에게 보낸 요셉은 대체
어디에 있느냐?”**

**“아버지.. 요셉은 죽었습니다...
이 옷에 묻은 피를 보시라고요.
요셉은 저희를 찾아오는 길에 그만
짐승에게 물려 죽은게 분명하다구요...”**

**피로 얼룩진 색동옷을 받아든 야곱은
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.
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사실에
큰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!**

**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겐
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
과연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
만날 수 있을까요?**